

여성혐오 단어에 대한 노출이 명시적, 암묵적 여성혐오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민영 박주원 허수민 권지혜†

계명대학교

한국사회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게시글 댓글 상에서 여성혐오 단어가 생성되고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혐오 단어에 대한 노출 정도가 개인이 가지는 여성혐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1에서는 설문을 통해 여성혐오 단어의 노출 정도(알고 있는 여성혐오 단어 수, 인터넷 댓글을 보는 정도)와 명시적 여성혐오 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혐오단어 노출이 많을수록 명시적 여성혐오 태도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미디어 자극에 대한 반복적 노출로 인한 자극 둔감화로 설명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실험을 통해 여성혐오 단어의 노출 여부를 조작하고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해 암묵적 여성혐오 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집단 간 분산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혐오단어에 노출될수록 암묵적 여성혐오 태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혐오 태도에 있어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의 차이를 보여주며, 혐오단어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노출 정도가 남성과 여성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혐오 단어, 여성 혐오, 명시적 태도, 암묵적 태도, 성별 차

* 이 연구는 2020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권지혜, 계명대학교,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E-mail : rhdqn3131@naver.com

어휘에는 인간의 심리가 담겨있다. 특히, 어떠한 특징을 바탕으로 사람을 범주화해서 가리키는 어휘에는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의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박동근, 2012).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휘 또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 어휘 속에 특정 집단을 향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어휘 중 최근 주목할 만한 신조어는 여성혐오 단어들이다(박현선, 2019). 여성혐오란, 여성에 대한 혐오, 공격성, 또는 적대적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Code, 2002),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에 의하면 빠순이¹⁾(2002), 개똥녀²⁾(2005), 사순이³⁾(2005), 돼지맘⁴⁾(2014) 등 2000년대 중반 이후 여성혐오적 관점을 담은 단어들의 수가 증가하였다(주창윤, 2011; 윤보라, 2013). 이러한 신조어들은 여성에 대한 비하와 폭력적 내용을 담고 있다.

신조어가 생성되고 확산이 된 것에 있어 TV나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Henry & Powell, 2015). 그중 인터넷 보급의 확산과 혐오단어의 증가가 그 추이를 같이한다는 것은 미디어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김수아(2015)는 초기 소수단체(일간베스트 커뮤니티; www.ilbe.com)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에게 논의되던

‘여성혐오’ 현상이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로 확대되었고, 대중가요의 가사로도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테크놀로지의 변화로 인해 그 확산 속도와 폭이 넓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여성혐오 단어의 확산에 있어 조하나 등(2013)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에 여성혐오 단어가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성혐오 단어들은 은어이므로 인터넷 뉴스 기사 본문이나 공영 방송에서 보다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이나 노래 가사와 같은 창작물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기사 댓글에 사용된 혐오 표현은 특정 커뮤니티에 소속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글과 달리 쉽게 접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진경선 등(2017)은 단체 대화방의 언어성폭력에 관한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기사에 달린 사람들의 댓글 28,000여 건의 어휘 분석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수연 등(2016)의 연구 역시 대중이 참여 가능한 온라인상의 댓글, 게시글, 채팅 글 등을 수집하여 여성 외모에 근거한 성차별,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함을 가정하고 있다.

여성혐오 단어 노출과 태도 형성

그러나 인터넷 기사 댓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을 읽는 것 역시 여성에 대한 태도를 반영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이

1) 연예인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10대 소녀를 속되게 이르는 말
2) 지하철에서 애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것이 인터넷으로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
3) 여자 사수생(四修生)을 낮잡아 이르는 말
4) 교육열이 매우 높고 사교육에 대한 정보에 정통하여 다른 엄마들을 이끄는 엄마를 이르는 말

루어진 실증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에 대상이 어떤 단어로 묘사되었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그 대상 집단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미디어에 사용된 어휘에 노출되는 것이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Brewer, Graf, & Willnat, 2003; Roskos-Ewoldsen, Klinger, & Roskos-Ewoldsen, 2007). 특별히 댓글이라는 특징은 해당 주장에 대한 찬성 반대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많은 사람의 찬성을 받은 여성혐오 댓글을 볼 때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이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논의된 바 있다(김수아, 2015). 그러므로 인터넷 뉴스 혹은 게시물에 대한 여성혐오적 댓글을 많이 읽는 사람은 여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둔감화(desensitization) 가설에 의하면, 혐오단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여성에 대한 혐오가 오히려 둔감해질 수 있다. 둔감화 가설은 부정적 미디어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개념으로,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결과 초기에는 흥분(arousal)을 일으켰던 자극에 점차 무감각해져 해당 메시지의 부정적 영향을 낮게 평가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Gunther, 1995; Hoffner et al., 1999).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악성 댓글을 많이 접할수록 규제에 대한 지지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홍식, 2010). 이를 볼 때 평소 여성혐오 단어에 노출이 많을수록 이에 익숙해져서 여성혐오태도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혐오단어 노출과 암묵적 태도

흥미로운 사실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혐오단어에 대한 단순 노출로 태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Zajonc(1968)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단어에 대한 노출만으로도 태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주장한 초기 심리학자 중 하나이다. 점화(priming)효과에 대한 연구들 역시 뉴스에 사용된 단어가 점화 효과를 일으켜 인종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argh, 1994; Valentino, 1999).

이러한 비의식적 과정 및 태도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태도를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로 크게 나누어 알아볼 필요가 있다(Nosek, 2007). 명시적인 태도는 조절 가능하며, 의도성이 있으며, 의식적이고, 정신적 자원을 요구하는 인지과정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암묵적 태도란, 조절이 어렵고, 의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인식이 어렵고, 자동화된 인지과정을 바탕으로 한다(Greenwald & Banaji, 1995).

명시적 태도는 주로 응답자의 의도성과 의식적 선택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측정은 주로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암묵적 태도는 응답자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 자동적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기에 간접적인 측정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예로는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가 있다. 이는 인지연결망 이론을 바탕으로 고안된 것으로, 개념들 간의 연합강도를 반응속도를 통해 추론하여 자동적 사고의 패턴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는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규범적 압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태도를 측정할 때는 불일치할 경우가 많다(홍영오, 이훈구, 2001; Greenwald & Banaji, 1995). 그러므로 어떤 집단

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태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를 함께 측정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나은영, 권준모, 2002; Greenwald, Poehlman, Uhlmann, & Banaji,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혐오 표현이 점차 만연해지고 있는 사회현상에 있어 여성혐오 표현의 노출이 명시적, 암묵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 1에서는 여성혐오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여겨지는 인터넷 뉴스의 댓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여성 전반에 대해 가지는 명시적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 2에서는 실험실 상황에서 점화를 통해 여성혐오 단어에 단순 노출되었을 때 여성 전반에 대한 암묵적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1. 혐오단어 노출 정도에 따라 여성혐오의 명시적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가설 2. 혐오단어 노출 여부에 따라 여성혐오의 암묵적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여성혐오 단어 노출과 태도에 있어 성별 차

본 연구에는 특정 성별, 즉 여성에 대한 혐오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여성이 여성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의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II) 보고서에 의하면, ‘된장녀’, ‘김치녀’, ‘김여사’, 등 여성혐오 표현에 남성 응답자의 54.2%가 공감한다고 답했으나, 여성은 24.1%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비슷하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연구센터(2016)가 진

행한 설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의 62.9%가 한국 사회에 여성혐오가 만연하다고 보는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85.9%가 이에 동의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별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더 광범위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대화에 대해서도 여성의 93.9%가 이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힌 반면, 남성은 69.9%만이 동의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여성 관련 사회 이슈를 속칭 ‘OO녀’ 사건이라 명명하는 것을 여성 응답자는 82.7%, 남성은 58.6%가 여성혐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 연구결과 역시 성희롱이나 최근 일어난 미투 운동에 있어 대상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평가 및 참여 의사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보고되었다(김정인, 최상인, 손영미, 2001; 주은혜, 백영민, 2018).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여성혐오 현상에 대한 인식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지 연결망 이론에 의하면 남녀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은 특정 개념에 대한 남녀의 노드 활성화 정도 또는 패턴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 노출에 의한 같은 점화 효과라도 남녀에 따라 다른 노드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성별에 관한 점화를 통해 남녀의 태도 형성을 다른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Steele & Ambady, 2006). 그러므로 가설 1과 2에 다음과 같이 성별 차를 추가하여 가설 3과 4를 설정하였다.

가설 3. 성별에 따라 혐오단어 노출 정도와 여성혐오의 명시적 태도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성별에 따라 혐오단어 노출 여부와 여성혐오의 암묵적 태도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여성혐오 단어 노출 정도와 명시적 여성혐오 태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노출 정도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뉴스를 볼 때 댓글을 보는 정도와 여성혐오 단어를 아는 정도로 파악하였다. 분석에 있어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적 공정성 인식은 통제하였는데, 먼저 우익권위주의 성향(Right-Wing Authoritarianism; Altemeyer & Altemeyer, 1996)이란 개인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성향을 나타내는지 나타내 주는 정도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우익권위주의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강했으며 전통적 성역할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Christopher & Mull, 2006; Christopher & Wojda, 2008; Feather & McKee, 2012). 사회적 공정성 인식은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라 할 수 있는데, 취업난 등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남성들이 성별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여기게 되면 여성혐오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성나경 등, 2019; 안상욱, 2011). 이러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들을 통제한 후 혐오단어 노출이 여성혐오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만 19세 이상 남녀 대학생 총 22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남성은 109명(47.80%)으로, 여성은 119명(52.19%)이었다.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1.86($SD=4.24$)였다.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1,500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지급받았다.

절차 및 측정 도구

설문 응답에 동의한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설문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기본적으로 인구 통계학적 정보로 나이와 성별을 표시하게 하였으며, 그 외 측정 변인은 다음과 같다.

여성혐오 단어의 노출정도

개인의 여성혐오 단어의 노출 정도는 아래의 두 가지로 알아보았다. 첫째, 개인의 여성혐오단어를 아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각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여성혐오 단어’를 검색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페미위키’ 사이트의 ‘성격/여성혐오 단어’로 분류되는 문서와 김수아(2015)가 사용한 단어에서 100개를 추출하였고, 응답자는 각 단어에 대해 알고 있는 단어를 선택하게 하였다.

두 번째로, 여성혐오 단어에 노출되는 정도를 인터넷 뉴스의 댓글을 보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보지 않는다, 4:항상 본다)를 이용하여 댓글을 보는 정도에 대해 표시하였다.

명시적 여성혐오 태도

여성에 대한 혐오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Piggot가 2004년에 개발한 내면화된 여성혐오 (*Internalised Misogyny*)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백승대와 안도현(2017)이 한국어로 번안한 10문항을 포함하여 Piggot(2004)이 원래 개발한 17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여성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한 총 17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6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아니다, 6점: 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내면화된 여성혐오 의식의 점수 범위는 17-102점 사이이다. 역채점 문항은 1문항이며, 높은 점수를 가질수록 내면화된 여성혐오 태도가 높다고 보았다. 척도는 “여자들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부풀려서 말한다.”, “여자들은 너무 쉽게 기분이 상한다.”, “나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역채점 문항)”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17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08이었다.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

우익권위주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Rattazzi, Bobbio와 Canova가 2007년에 개발한 우익권위주의척도 중 권위주의적 공격과 복종요인 총 10문항을 김민영과 한규은이 2018년에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극단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저지하고, 악을 없애는 일을 할 강력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악의 무리를 없애고 우리를 원래의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강하고 단호한 리더이다.”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응답자는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1-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익권위주의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0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38이었다.

사회적 공정성 인식

사회적 구조가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사용된 설문 문항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한국행정연구원, 2017).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문항은 정부기관에 대한 공정성 인식(행정기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 사회공정성(교육 기회, 취업 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 혜택, 지역 균형 발전, 법 집행, 정치 활동, 성별에 따른 대우, 언론 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 병역 의무 이행)의 총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는 공정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응답자는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공정하지 않다, 4: 매우 공정하다)상에 평정하였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1-48점이며, 문항 12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56이었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는 표 1에 정리하였다. SPSS 2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한 상관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혐오단어를 많이 알수록 여성혐오 태도는 적었으며($r=-.30, p<.01$), 우익권위주의적 태도가 낮고($r=-.17, p<.05$), 사회를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했다($r=-.17, p<.01$). 댓글 읽는 정도를 통해 나타난 여성혐오 단어 노출과 여성혐오 태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 및 변인들 간 상관관계 (연구 1)

변인	M(SD)	1	2	3(1)	3(2)	4	5
1. 나이	21.86(4.24)	-					
2. 성별(남=0, 여=1)	0.52(0.50)	-.25**	-				
3. 혐오단어노출정도							
(1) 알고 있는 혐오단어 수	49.71(22.08)	-.05	.11	-			
(2) 인터넷 뉴스 댓글 읽는 정도	2.82(0.88)	-.02	.10	.09	-		
4. 여성혐오태도	2.25(0.85)	.17*	-.49**	-.30**	-.10	-	
5. 우익권위주의	2.54(0.72)	.14*	-.12	-.17*	.01	.40**	
6. 사회공정성 인식	2.89(0.83)	-.06	-.17*	-.17**	-.01	-.19**	.14*

* $p < .05$, ** $p < .01$.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우익권위주의와 사회공정성 인식을 통제한 후 응답자의 여성혐오 단어에 대한 노출 정도(혐오단어 수, 인터넷 댓글 읽는 정도)와 명시적 여성혐오 태도의 설명 정도를 알아보았다. 또

한 이를 성별이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각 변인을 중심화한 후 분석한 결과, 응답자가 알고 있는 혐오단어 수 또는 인터넷 댓글 읽는 정도는 여성혐오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표 2). 응답자가 알고 있는 혐오단어 수

표 2. 여성혐오태도를 예측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β	t	R^2	ΔR^2
종속변인: 여성혐오태도				
우익권위주의	.381	6.237***	.178	.178***
사회공정성 인식	.138	2.265*		
우익권위주의	.318	5.982***	.410	.231***
사회공정성인식	.037	.687		
성별	-.665	-3.237**		
알고있는 혐오단어수	-.153	-2.014*		
댓글 읽는 정도	-.159	-2.063*		
성별 * 알고있는 혐오단어수	-.106	-.732		
성별 * 댓글 읽는 정도	.379	1.997*		

주. * $p < .05$, ** $p < .01$, *** $p < .001$.

가 많을수록($\beta = -.153, p < .05$), 그리고 응답자가 인터넷 댓글을 읽는 정도가 높다고 응답할수록($\beta = -.159, p < .05$) 여성혐오태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단어 노출 정도가 여성혐오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성별과 댓글 읽는 정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인터넷 댓글을 볼수록 여성혐오 태도가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 인터넷 댓글을 볼수록 여성혐오 태도가 조금 증가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혐오단어 노출 정도와 암묵적 여성혐오 태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명시적 태도를 측정하였으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응답자들의 여성

혐오태도가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연구 2에서는 명시적 태도와 함께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연구 1에서 응답자가 혐오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혐오단어가 자주 나타나는 댓글을 어느 정도 찾아보는지와 같이 응답자의 의지적 부분을 알아보았다면, 연구 2에서는 혐오단어의 의미에 대해 아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혐오 단어에 대한 단순 노출 여부를 조작하여, 노출 여부와 여성혐오 태도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해보고자 하였다.

암묵적 태도는 IAT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이 검사의 기본 가정은 암묵적 사고는 상황적 단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동적인 활성화는 자극에 대해 더욱 빨리 행동 반응을 나타내므로 자극연합에 대한 반응시간을 통해 태도를 측정하게 된다(Fazio, Jackson, Dunton, & Williams, 1995). 즉, 참가자가 자극 단어(예, 여성관련 단어)와 범주화 단어(예, 긍정 단어/부정 단어)의 연합에 어느 정도 빨리 반응하는지가 해당 참가자의 암묵적 태도를 나타낸다.

방법

연구 대상

연구 2에는 만 19세 이상 남녀 대학생 중 실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총 63명(남자: 24명, 여자: 39명)이 실험 집단($n = 32$; 남자: 11명, 여자 21명)과 통제 집단($n = 31$; 남 13명, 여 18명)에 무작위 배분되었다.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평균 나이는 21.97세($SD = 2.51$)이었다. 참가자는 여성에 대한 태도 연구라는 설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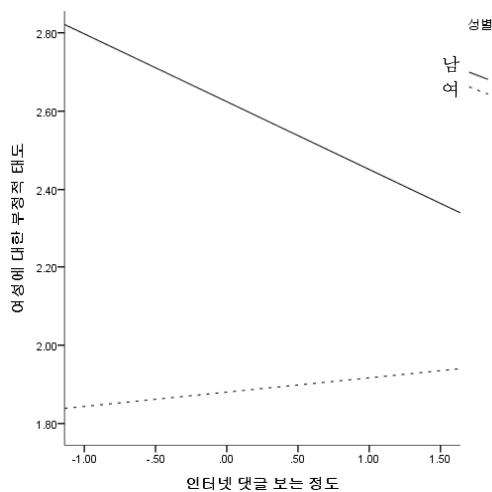


그림 1. 여성혐오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인터넷 댓글 보는 정도와 성별의 상호작용

들은 후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5,000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지급받았다.

연구 절차

실험은 각 실험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각 참가자들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선적으로 배치되었다. 실험집단의 참가자들은 혐오단어들로 문장의 괄호 채우기 과제를 수행하였고, 통제집단의 참가자들은 중립단어로 문장의 괄호 채우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뒤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과제를 수행하기 전 이 과제에 대한 속도와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말하여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키를 누를 것을 지시하였다. 과제의 숙달을 위해 두 번의 연습시행이 있었다. IAT과제가 끝난 뒤, 실험참가자들은 종이로 된 설문지에 명시적 여성혐오 태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뒤 참가자들은 구조화된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례품 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측정 도구

혐오단어 노출조작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게 혐오단어를 노출하기 위해 괄호채우기 과제를 시행하였다. 실험집단의 경우 연구 1에서 사용한 혐오단어 중 30개(예, ‘된장녀’, ‘콩깍이’, ‘걸레’, 등)를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실험참가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정답이 없는 과제라 안내를 받은 뒤, 30개의 혐오단어를 각 한번씩만 사용하여 중립문장 30개(예, ()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다.)의 괄호를 채워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실험집단과 동일한 중립문장 30개를 제시하였고, 중립 단어(예, ‘남자’, ‘여자’)를 사용하여 괄호를 채워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문장의 완성시간은 약 5분 ~ 1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주어진 단어로 괄호를 채워 문장을 완성하였다.

암묵적 여성혐오 태도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여성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Greenwald 등이 1998년에 개발한 암묵적 연합 검사(IAT)를 실시하였다. IAT는 두 가지 표적범주와 긍정/부정과 같은 속성 범주를 연합시켜 참가자들의 반응시간을 알아보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으로 생각되는 이름 16개와 남성으

표 3. 암묵적 연합 검사 블록의 구성

블록	내용
첫 번째	남성과 여성 분류
두 번째	긍정과 부정 형용사 분류
세 번째	남성과 여성 분류 + 긍정과 부정 형용사 분류
네 번째	남성과 여성 분류 (반대 키)
다섯 번째	남성과 여성 분류 + 긍정과 부정 형용사 분류 (반대 키)

로 생각되는 이름 16개(부록 참조)를 뽑고, 긍정의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 16개와 부정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 16개(방희정, 이현지, 2012)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IAT는 총 다섯 블록으로 이루어졌다(표 3). 첫 번째 블록은 사람의 이름이 화면 중앙에 제시되며, 해당 이름이 남성범주에 속하는지 여성범주에 속하는지 키를 눌러 판단하였다. 판단은 ‘Z(왼쪽)’키와 ‘/(오른쪽)’키를 눌러 실시하는데 이때 어떤 키가 남성범주인지 여성범주인지는 각 참가자에게 무작위로 배치된다. 즉 어떤 참가자는 제시된 이름이 여성범주일 때 ‘Z’키를, 남성범주일 때 ‘/’키를 눌러 판단하게 하였고, 다른 참가자는 그 반대였다. 전체 블록은 모든 시행에서 범주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화면의 좌우 상단에 범주(예, 남성, 여성, 긍정적인, 부정적인)를 표시하였다. 첫 번째 블록은 총 30회 실시되었다.

두 번째 블록에서는, 긍정 및 부정의 형용사가 화면 중앙에 제시되고 그 단어가 ‘부정적’으로 생각되면 ‘Z’키를, ‘긍정적’으로 생각되면 ‘/’키를 누르도록 하였다. 이 시행은 총 30회 시행되었다.

세 번째 블록에서는 화면 중앙에 여성 이름, 남성 이름, 긍정 형용사 또는 부정적 형용사가 무작위로 제시되며, 제시된 단어가 여성 이름인지 남성이름인지 긍정형용사인지 부정형용사인지 판단하는 과제이다. 판단 기준은 화면의 좌우 상단에 표시되며(예, 좌측에 ‘여성 또는 부정적인’, 우측에 ‘남성 또는 긍정적인’ 또는 좌측에 ‘남성 또는 부정적인’, 우측에 ‘여성 또는 긍정적인’) 중앙에 제시된 단어가 왼쪽 상단에 표시된 범주에 속하면 ‘Z’키를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범주에 속하면 ‘/’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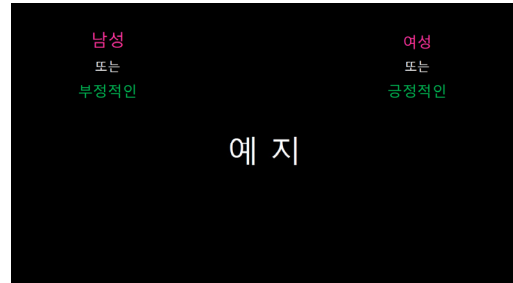


그림 2. IAT 화면 예시

를 누르도록 하였다(그림 2). 참가자에게는 해당 연합조건 여성부정(좌)-남성긍정(우) 또는 남성부정(좌)-여성긍정(우) 둘 중 하나가 무작위로 제시되었다. 본 블록의 시행은 총 40회 실시되었다.

네 번째 블록은 첫 번째 블록과 반대되는 키를 이용하여 단어의 범주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블록 역시 30회 시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블록은 세 번째 블록에서의 연합조건과 반대되는 연합조건이 제시되었다. 즉 세 번째 블록에서 여성부정(좌측)-남성긍정(우측) 연합이 제시되었다면 다섯 번째 블록에서는 남성부정(좌측)-여성긍정(우측) 연합이 제시되어 남성이름과 부정 단어일 때 ‘Z(왼쪽)’키를, 여성이름과 긍정 단어일 때 ‘/(오른쪽)’키를 눌러 수행되었다. 시행은 총 40회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단어가 자신이 생각하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키를 누르도록 지시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긍정/남성-부정’ 연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반응시간이 더 길다면 남성이 여성보다 여성 이름과 긍정단어를 연합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명시적 여성혐오태도

척도는 연구 1과 같다.

장치

IAT는 Psychopy3을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구현되었다. 실험참가자들은 약 60cm의 거리를 두고 화면을 응시하여 키보드에 왼손(자판의 'Z'키)과 오른손(자판의 '/'키)을 올려두고 키를 누르도록 지시받았다. 이 장치를 통해 자극 연합에 대한 개인의 반응시간이 기록되었다.

결 과

연구 2의 자료는 SPSS 2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어 노출과 성별이 암묵적 여성혐오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암묵적 연합 검사 결과에서 D값을 산출하였다. D값은 여성 긍정-남성 부정 연합 조건 40 시행의 평균 반응시간에서 여성-부정/남성-긍정 연합 조건 40 시행의 평균 반응시간

을 뺀 후, 두 연합 조건 80시행의 참가자 개인별 표준편차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D값이 클수록 여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참가자의 성별(남, 여)과 여성 혐오단어 노출(실험집단, 통제집단)에 따라 D값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2-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의 주효과가 나타났다(표 4), $F(1, 59)=66.020, p<.001, \eta^2=.528$. 즉,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여성 이름이 부정적 단어와 강하게 연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집단 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59)=0.184, p>.05, \eta^2=.003$. 집단에 대한 주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F(1, 59)=0.299, p>.05, \eta^2=.005$. 이는 여성 혐오단어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여성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과 암묵적 태도 간의 더 구체적인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D값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긍정-남성부정, 여성부정-남성긍정 연합 자극 조건을 나누어 알아보았다. 먼저, 여성긍정-남성부정 연합 조건에서 여성 이름에 대한 반응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2-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성별에 대한

표 4. IAT 결과 D값에 대한 단어 노출 집단과 성별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p	partial η^2
집단	0.040	1	0.040	0.299	.586	.005
성별	8.746	1	8.746	66.020***	.000	.528
집단 x 성별	0.024	1	0.024	0.184	.669	.003
오차	7.816	59	0.132			
전체	19.398	63				

*** $p<.001$

표 5. IAT 결과 중 여성-긍정/남성-부정 연합에서 여성 이름에 대한 단어 노출 집단과 성별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p	partial η^2
집단	0.015	1	0.015	0.292	.591	.005
성별	0.353	1	0.353	6.912*	.011	.105
집단 x 성별	0.289	1	0.289	5.668*	.021	.088
오차	3.010	59	0.051			
전체	48.295	63				

* $p < .05$

주효과가 나타났다(표 5), $F(1, 59)=6.912$, $p < .05$. 즉, 남성($M=0.94$, $SD=.27$)의 경우 여성($M=0.78$, $SD=.20$)보다 여성 이름과 긍정단어의 연합이 강하지 않았다. 집단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59)=0.292$, $p=.591$, 이는 혐오단어에 노출된 집단($M=0.84$, $SD=.28$)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M=0.85$, $SD=.20$) 간에 여성 이름과 긍정단어를 연합하는 것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별과 집단 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했다(그림 3), $F(1, 59)=5.668$, $p < .05$. 즉 혐오단어에 노출되었을 경우 남성($M=1.03$, $SD=.35$)은 여성($M=.73$, $SD=.18$)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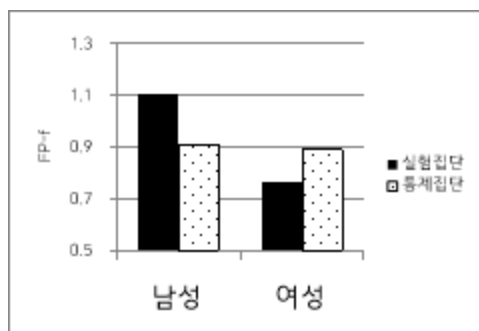


그림 3. IAT 결과 중 여성-긍정/남성-부정 연합에서 여성 이름 반응시간에 대한 단어 노출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FP-f = 여성-긍정/남성-부정 연합에서 여성 이름에 대한 반응시간)

여성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부정적이었으나, 혐오단어에 노출되지 않았을 경우 남성($M=.86$, $SD=.16$)과 여성의($M=.84$, $SD=.22$) 여성에 대한 암묵적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어 노출과 성별이 명시적 여성혐오 태도에 미치는 영향

참가자의 성별(남, 여)과 여성 혐오단어 노출(실험집단, 통제집단)이 여성에 대한 명시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2-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대한 주효과($F(1, 59)=1.893$, $p=.174$)와 집단에 대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1, 59)=0.022$, $p=.882$). 성별과 집단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59)=0.384$, $p=.53$.

종합 논의

여성혐오의 현상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범행동기로 ‘평소 여자들이 (자기를) 무시해서 살해했다’라고 하여 여성혐오형 범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시사저널, 2016). 영국에서는 여성혐오를 바탕으로 한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증오 범죄로 구분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범죄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사회 내 여성혐오는 일상생활에서도 데이트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이나 온정적 성차별(benevolent sexism), 성폭력 대상화 등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서경현, 안귀여루, 2007; 최광선, 정명선, 1997).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성혐오적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여성혐오적 태도 형성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로, 여성혐오 관련 어휘의 생성 및 노출이 여성혐오적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 혐오단어(예: 꽃뱀, 메갈 등) 노출 정도에 따라 참가자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다른지 알아보려고 설계되었다. 연구 1에서 여성혐오단어를 얼마나 알고있는지, 그리고 여성혐오단어가 포함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는 인터넷 뉴스 댓글을 어느 정도 보는지와 명시적 여성혐오태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여성혐오단어를 많이 알수록, 인터넷 뉴스 댓글을 많이 볼수록 여성혐오태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설 1을 지지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혐오단어 노출 정도가 여성혐오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이 발견되었는데, 남성의 경우 인터넷 댓글을 읽는 정도가 높을수록 여성혐오태도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가설 3을 지지한다.

연구 2에서는 여성 혐오단어의 노출여부를 조작 후 명시적 여성혐오태도와 함께 암묵적 여성혐오태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혐오단

어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암묵적 여성혐오 태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과 혐오단어 노출 집단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는데, 남성의 경우 혐오단어에 노출되었을 때 암묵적 여성혐오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보다 여성혐오단어와 부정적 단어(예, 불쾌)가 강하게 연합된 것으로 보고된 기존 연구와 일치하며(성나경 외, 2019) 가설 4를 지지한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 1과 연구 2의 상호작용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연구 1에서 알아본 명시적 태도의 경우 남성이 혐오단어에 노출되는 정도가 많으면 여성혐오태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둔감화 가설을 지지하는 기존연구와 방향이 일치하는 결과로서(이은주, 박준모, 2016), 노출이 많을수록 부정적 미디어의 영향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 2에서 알아본 암묵적 태도의 경우 남성이 혐오단어에 노출되었을 때 여성혐오태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중 하나는 혐오단어에 노출 과정에서의 의도성일 것이다. 연구 1에서는 여성혐오단어에 노출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가 여성혐오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와 인터넷 댓글을 어느 정도 보는 편인지를 물었다. 이것은 여성혐오단어에 노출에 의지적으로 노출된 상황이 많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성향이 진보에 가깝고 사회참여가 활발하다고 하였으므로(고문정, 2018), 연구 1에서 측정된 인터넷 뉴스의 댓글을 보는 정도는 혐오단어 노출 정도와

함께 사회 참여적 의도를 표현해 주는 변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혐오단어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명시적 여성혐오태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구 2에서는 본인의 의도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반복적인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점화를 통한 단순 노출을 조작하여 노출 자체만의 효과만을 볼 수 있었다. 의도성이 없이 혐오단어에 노출된 경우에는 노출에 의해 여성혐오태도가 증가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혐오 댓글이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에 논의되던 바를 세분화하여 실험적으로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수아(2015)는 여성혐오 댓글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여성혐오태도를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명시적 태도만(이은주, 박준모, 2016)을 알아보거나 암묵적 태도만(성나경 등, 2019)을 알아보았는데, Greenwald 등(1995)이 제안하였듯이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연구 2)에서는 여성혐오태도에 대한 명시적 측정과 암묵적 측정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직접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혐오태도 노출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 노출과 태도 형성에 관하여 사회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특정 대상 또는 주제와 관련된 미디어에 노출될수록 이에 대한 태도가 강화된다는 주장과(Brewer, Graf, & Willnat, 2003;) 둔감화된다는 주장이 있는데(Gunther, 1995), 본 연구의 결과는 전자를 지

지한다. 즉, 부정적 자극에 대한 노출이 부정적 태도를 강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이 2019년부터 연예뉴스에 대한 댓글 폐지를 실시한 것은 사용자들이 댓글에 포함된 혐오 단어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정집단 혐오를 감소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험자 집단의 대표성으로 인한 일반화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도 동일한 결과가 발견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2에서 실험참가자 수는 총 63명(남자: 24명, 여자: 39명)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었으나 남녀의 비율이 동일하고 더 많은 참가자가 있었다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

추가 변인에 대한 고려 역시 추후 연구에서 보완할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혐오단어의 노출정도와 단순 노출여부를 알아보았으나, 연구 1에서 노출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아는 혐오단어의 개수 또는 인터넷 뉴스의 댓글을 보는 정도는 논의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참여 정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공정성 인식과 함께 사회참여 의식을 통제 변인으로 추가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성인지각수성, 성역할고정관념, 나이 등 다양한 관련 변인들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 역시 추후 연구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론을 보완 및 강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포함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연구 2에서는 혐오단어에 단순 노출

되었을 때 암묵적 태도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실험참가자가 혐오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단순 노출된 경우와 의미를 모른 채 단순 노출되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후 질문을 통해 단어완성 과제에 사용된 혐오단어의 의미를 아는지 여부를 물은 뒤 분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고문정 (2018). 누가 온라인 뉴스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뉴스를 공유하는가?: 통계 학습 방법의 적용.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5(1), 5-51.
- 김민영, 한규은 (2018). 정서조절을 통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정서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83-99.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2), 279-317.
- 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성희롱문제 지각에서 성차 및 성역할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1-21.
- 국립국어원 (2002). 2002년 신어.
- 국립국어원 (2005). 2005년 신어.
- 국립국어원 (2014). 2014년 신어.
- 나은영, 권준모 (2002). 암묵적 연합 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강도 측정 및 응용: 사투리 음성자극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51-74.
- 박동근 (2012). [X-남], [X-녀]류 통신언어의 어휘 형성과 사회적 가치 해석. *사회언어학*, 20(1), 27-56.
- 박현선 (2019). 신어에 나타나는 여성혐오 표현.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45-251.
- 방희정, 이현지 (2012).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대학생 및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2), 191-213.
- 백승대, 안도현 (2017).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태도가 여성혐오 의식에 미치는 영향: 남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6(1), 205-235.
- 서경현, 안귀여루 (2007).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2), 77-96.
- 성나경, 성현준, 임광현, 김성현, 김성희, 김사라, 이수정 (2019). 대학생의 젠더혐오표현에 대한 암묵적 태도 측정-암묵적 연합 검사 (IAT) 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3), 243-261.
- 시사저널 (2016). "강남역 살인사건은 왜 여성혐오범죄가 됐나". 2020년 7월 31일 검색,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idxno=152417>
- 안상욱 (2011). 한국사회에서 '루저문화'의 등장과 남성성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홍식 (2010). 악성 댓글에 대한 제3자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24(5), 238-278.
- 윤보라 (2013). 일베와 여성 혐오. *진보평론*, 57(1), 33-56.
- 이수연, 김현정, 정수연 (2016). 텍스트마이닝 기반 토픽 분석을 통한 온라인 성차별성의 이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3(3), 159-199.
- 이은주, 박준모 (2016). 성별과 노출 빈도에 따

- 른 여성 혐오 발언 규제 지지도의 차이. *언론정보연구*, 53(2), 265-304.
- 한국행정연구원 (2017). 2017년 사회통합실태 조사, 343-344.
- 조하나, 정연오, 이재동, 이지형 (2013). 인터넷 뉴스 댓글의 감정 분석을 통한 오피니언 마이닝.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3(1), 149-150.
- 주은혜, 백영민 (2018). 미투운동은 누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지지받는가?: 미디어의 동원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6), 37-65.
- 주창윤 (2011). 젠더 호명과 경계 짓기.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99-314.
- 진경선, 김수연, 정유경, 송현주, 송민 (2017). 단채카톡방 언어성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289-313.
- 최광선, 정명선 (1999). 공격특성과 성폭력 영화에의 반복 노출이 시청자의 기분변화, 폭력영화 및 피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5(2), 123-139.
- 페미위키. "여성혐오단어". 2019년 4월 2일 검색, <https://femiwiki.com>.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2016). 혐오 표현과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II):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 홍영오, 이훈구 (2001).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85-204.
- Altemeyer, R. A., & Altemeyer, B.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Harvard University Press.
- Bargh, J. A. (1994). The four horsemen of automaticity: Awareness, intention, efficiency, and control in social cognition.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1, 1-40.
- Brewer, P. R., Graf, J., & Willnat, L. (2003). Priming or framing: Media influence on attitudes toward foreign countries. *Gazette (Leiden, Netherlands)*, 65(6), 493-508.
- Christopher, A. N., & Mull, M. S. (2006). Conservative ideology and ambivalent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2), 223-230.
- Christopher, A. N., & Wojda, M. R. (2008).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right-wing authoritarianism, sexism, and prejudice toward women in the workfor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2(1), 65-73.
- Code, L. (Ed.). (2002). *Encyclopedia of feminist theories*. Routledge.
- Fazio, R. H., Jackson, J. R., Dunton, B. C., & Williams, C. J. (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s: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6), 1013-1027.
- Feather, N. T., & McKee, I. R. (2012). Values, right 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ambivalent attitudes toward wome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2(10), 2479-2504.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1), 4-27.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Greenwald, A. G., Poehlman, T. A., Uhlmann, E. L., & Banaji, M. R.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1), 17-41.
- Gunther, A. C. (1995). Overrating the x-rating: The third-person perception and support for censorship of pornography. *Journal of Communication*, 45(1), 27-38.
- Henry, N., & Powell, A. (2015). Embodied harms: Gender, shame, and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21(6), 758-779.
- Hoffner, C., Buchanan, M., Anderson, J. D., Hubbs, L. A., Kamigaki, S. K., Kowalczyk, L., Pastorek, A., Plotkin, R. S., & Silberg, K. J. (1999). Support for censorship of television violence: The role of the third-person effect and news exposure. *Communication Research*, 26(6), 726-742.
- Nosek, B. A. (2007). Implicit - explicit rela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2), 65-69.
- Piggot, M. (2004). Double jeopardy: Lesbians and the legacy of multiple stigmatized identities. *Unpublished thesis, Psychology Strand at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Australia.*
- Rattazzi, A. M. M., Bobbio, A., & Canova, L. (2007).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5), 1223-1234.
- Roskos-Ewoldsen, D. R., Klinger, M. R., & Roskos-Ewoldsen, B. (2007). Media priming: A meta-analysis. *Mass media effects research: Advances through meta-analysis*, 53-80.
- Steele, J. R., & Ambady, N. (2006). "Math is Hard!" The effect of gender priming on women's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4), 428-436.
- Valentino, N. A. (1999). Crime news and the priming of racial attitudes during evaluations of the president. *Public Opinion Quarterly*, 63(3), 293-320.
- Zajonc, R. B. (1968). Attitudinal effects of mere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pt2), 1-27.
- 논문 투고일 : 2020. 06. 25.
1 차 심사일 : 2020. 07. 06.
게재 확정일 : 2020. 08. 23.

The Effect of Exposure to Misogynistic Words on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 Women

Min Young Kim Joowon Park Sumin Heo Ji Hye Kwon
Keimyung University

In Korean society, words related to misogyny are being created and spread out in the Internet communities and the Internet news posts comm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if exposure to misogynistic words affects misogynistic attitudes toward women. Study 1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of misogynistic words (the number of misogynistic words known and the level of Internet comments viewed) and explicit misogynistic attitudes. As a result, the greater the exposure of misogynistic words, the less explicit misogynistic attitudes were found among men. The result can be explained as a desensitization of stimuli caused by repetitive exposure to media. In Study 2,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manipulate the exposure of misogynistic words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mplicit misogynistic attitudes through implicit association tests.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implicit misogyny attitude is stronger as male participants are exposed to misogynistic words. The finding of this study suggests that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 misogyny can diverge. It also implies that the exposure to misogynistic words can affect men's and women's attitudes in a different manner.

Key words : *misogyny, misogynistic words, explicit attitude, implicit attitude, gender differences*

부록 1. 성별범주와 긍정 및 부정의 속성 범주에 속한 단어로 이루어진 IAT실험 자료

성별범주		속성 범주	
여성 이름	남성 이름	긍정단어	부정단어
사라	원범	다정한	난폭한
민희	범수	희망찬	음흉한
복희	철수	씩씩한	미운
민지	경훈	따뜻한	무서운
수연	태현	상냥한	잔인한
순자	동식	행복한	거만한
지연	상우	세심한	무력한
미숙	영석	힘있는	비겁한
예지	동훈	활발한	질투하는
수정	춘배	용기있는	사악한
선희	진석	건강한	우울한
은정	성일	신뢰로운	절망적인
은아	재혁	정직한	방탕한
지은	필규	현명한	무시하는
아란	종철	친절한	속좁은